

지역 매 아리

동김제 '로컬푸드 토요일' 개장 오는 4월 20일~6월 22일까지

동김제로컬푸드 친환경협의회 회원들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벽골제(첫째주, 셋째주), 김산소공원(둘째주), 동김제로컬푸드(넷째주)에서 '로컬푸드 토요일'을 개장한다.

로컬푸드 토요일은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시종보다 저렴한 저가격으로 판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 공예체험을 접할 수 있고 신명나는 난타, 창작연극 등 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다양한 판매마당과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함께 어우러진 이번 행사가 주말 아이들과 가볼만한 곳,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봄철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

완주군이 봄철 기온상승으로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진드기 활동 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로 진드기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및 쯤쯤가무시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1인 1마을을 출장, 동영상, 문자전광판을 이용한 홍보활동과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명률이 약 20%에 이르며, 예방백신도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벽골제팔기 이웃돕기성금 기탁

김제시 교원동 벽골제팔기(대표 이주봉)는 17일 교원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

벽골제팔기(대표 이주봉)는 4년차에 접어든 청년농업인이 운영하고 있는 관내 딸기농가로 최근 성황리에 치러진 교원동민들의 날 특산물 판매부스를 운영해 얻은 팔기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이날 벽골제팔기 이주봉 대표는 "약소하지만 관내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9년도 민주평화국민연대 국회의원회 기초자치단체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제시 현안 및 국가예산 사업 등을 설명했다.

김제시,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

현안사업 및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등 건의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제시는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4차)를 통해 그동안 3차에 걸쳐 발굴한 53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등 총 91개 사업을 2020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고, 국소실장이 주축이 되어 기획재정부 등 중앙 각부처를 방문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9년도 민주평화국민연대 국회의원회 기초자치단체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실훈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현안 및 국가예산 사업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의원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사업은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용지 AI 대응 가급밀집 지역 축사매입,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김제역주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용지현업축사 매입, 광역기반시설 관로 개설, 지평선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새만금 수목원 조성관련 민경강 토사채취, 태양광 주택지원 설치 용량 확대, 청년·귀농창업 정책자금 상향 및 상환조건 완화 등이다.

특히 김제역은 2004년 KTX 개통 이래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까지 KTX가 운행했으나,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 KTX 김제역 정차 운행이 배제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구하는 현 정부 핵심과제에 맞게 경부선 KTX 일반선로 동대구-밀양-구포-부산 16회 운행처럼 호남선 KTX 일반선로 익산-김제-장성-광주 12회 운행을 강력 요청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국가예산 전년 대비 25% 증가한 사상 최대 7,031억원을 확보했으며, 2020년 도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5월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부처 사업 편성단계부터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주요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등 2020년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산림조합,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MOU

10년간 75억원 투입... 산림자원 활용 소득창출 모델 발굴

완주군과 완주군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이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17일 완주군은 완주군산림조합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상호간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총 동원해 협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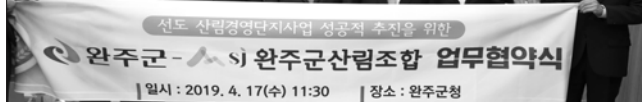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된다.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승치리 일대 1073ha를 대상으로 10년간 75억원이 투입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모델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소득은 농업소득에 비해 순환주

기가 보통 20년 이상으로 매우 길어 산주들로부터 무관심에 방치되거나 임상 또한 경제수가 아닌 잡목 위주의 혼효림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유럽 선진국에 비해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창출이 미흡하고, 산림경영 전반에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 주관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지속적인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17일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완주군산림조합과 업무 협약식을 했다.



김제시에서는 오는 20일 벽골제 관광안내소 앞에서 '전북투어패스 1+1 판매 이벤트'를 한다.

전북투어패스 1+1 판매이벤트 추진

김제시, 20일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벽골제 관광안내소 앞

김제시(시장 박준배)에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벽골제 관광안내소 앞에서 '전북투어패스 1+1 판매 이벤트'를 추진한다.

전북투어패스는 한 장의 카드로 전북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시내버스 및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과 맛집·숙박 등 특별할인가맹점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자유이용권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24시간 동안 전북 관광을 누릴 수 있는 1일권(8,300원) 구매자에 한하여 한 장 구입 시 한 장을 더 주는 1+1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20매 이상 구입 시 별도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현재 김제시는 벽골제, 금산사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하여 각종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장, 지평선시네마, 우리건강랜드 등 7개의 자유이용시설이 있으며 각종 맛집, 숙박시설이 특별할인가맹점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양문업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전북투어패스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전라북도 및 김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투어패스를 이용해 더 경제적이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투어패스를 이용해 우리 농경문화의 대표적 유적 벽골제에서 짬뽕공예, 목공예 체험도 하고 김제시내의 맛깔난 음식점에서 특별할인가격으로 식사 하신 후 지평선시네마에서 영화 한편 관람하시는 봄날 나들이를 계획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청년창업농 17명 최종 선발

완주군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들어간다.

17일 완주군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천자 20명 중 17명을 최종 선발하고, 최근 사업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11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9명에게는 4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8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차등 지원 된다.

창업예정자 3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받게 된다.

완주군의 이번 사업신청에는 청년 28명이 지원했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를 통해 20명을 선발하

고, 전라북도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17명을 선발했다.

이들 청년농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명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 의무교육(연간 160시간), 경영장부 작성 및 농업경영실적 제출등의 의무등이 상세히 설명된다.

김택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a hand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hild abuse to the National Helpline 112. It lists symptoms of child abuse, reasons for report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helpline.